

‘중세의 오로치’: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야마타노오로치 신화의 재연

야마타노오로치 신화는 스사노오가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인 『고사기(古事記)』(712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스사노오가 무서운 괴물을 퇴치했다는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중세 이즈모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설화를 소개합니다.

스토리는 내전과 사회적인 불안감이 가득했던 16세기 초엽, 교토에 살았던 승려 리안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교토에서는 빈번한 내란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안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신들이 사는 전설의 땅, 이즈모로 여행을 떠납니다. 리안은 여기서 이즈모에 전해 내려오는 야마타노오로치 신화의 또 다른 전설을 알게 됩니다. 1523년, 리안은 본 작품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즈모에 도착한 리안은 이 지역의 신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인을 만납니다. 리안은 노인에게 안내를 의뢰합니다. 노인은 리안에게 야마타노오로치가 과거 히이 강의 아мага후치에 살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인근 산에는 야마타노오로치가 죽기 직전에 만져서 철이 된 바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안은 바위를 직접 보고 싶어 하지만, 노인은 그런 리안에게 경고를 하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옛날, 바위가 있는 장소를 찾고자 했던 지방의 영주가 일행에게 산의 초목을 벌채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벌채를 시작하자마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쓰러진 거목이 야마타노오로치의 모습으로 변했고, 이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리안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야마타노오로치는 요괴가 아니라 산의 수호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안에게 들판의 잡초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고, 교토로 돌아온 리안은 이 신화에 담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